



통권 56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6. 12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지난 6월 8일, 명동성당 앞에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주최로
(주관: 서울연합, 서총련) '민의왜곡 규탄과 민주개혁을 위한 6월 항쟁 계승대회' 가
학생과 시민 2,00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모임에서는 4·11 총선의 민의왜곡을 규탄하고, 92년 대선자금 공개,
5월 학살 책임자 처벌 및 미국의 공개사과, 반민주 악법철폐, 정보 통신 주관 수호,
공안탄압 분쇄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문민정권의 인권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 국 민소득 1만달러, OECD 가입 추진,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개최, 월드컵 유치 등 세계로 미래로 날마다 귀따갑게 쏟아붓는 선전 봇물속에 진정 우리의 절실한 과제인 민족문제(화해와 통일), 평화문제, 민주화 실천, 인권 복지 문제는 뒷전에 밀려있다. 또한 권력형 부정비리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일등국가’, ‘국가경쟁력’, ‘삶의 질 향상’ 같은 화려한 구호들 뒤편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마치 4.11 총선이 집권 여당의 독주와 민족, 민주 운동 탄압을 위임 받

기라도 한 듯 유권자가 선택한 국민대표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억지 여대야소를 만들고 3권분립 원칙이 분명한 터에 입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선출케하는 비합리속에 국회의 원구성은 고행을 달리고 있다. 또한 행정부 독주를 견제할 국회의 기능은 무력화되고 잇단 공안기관 회의에서는 불법시위, 용공좌경 척결이란 공안 칼날로 양심적 청년, 학생운동, 합법적 노동운동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법과 상식을 벗어난 기본권 침해는 지난 29일에도 있었다. 서울 경찰청 보안과는 이미 8년전에 만들어져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의리, 협조와 단결이라는 3대 덕목을 갖고 청년의 기상과 양심으로 조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직장 청년들이 합법적 청년운동을 해오고 있는 ‘나라사랑청년회’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하였다. 변호인 접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안당국의 조사 촛점은 회원 소식지 ‘장산곶매’에 실린 제7차 범민족대회 관련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인신 구속으로 인한 최대의 인권침해 조항으로 폐지의 목소리가 드높고 이미 재판부에서 조차 무죄 판결이 잇다르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또다시 건강한 청년들을 구속하는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0세가 넘은 노인, 임산부까지도 무차별 구속해 인권유린의 지적이 높았던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의 구속이 공개적이고 평화적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면 ‘나라사랑청년회’ 간부들의 구속은 소모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일논의마저도 ‘이적표현물’ 운운하며 탄압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 조성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찰은 또한 긴급구속에 항의방문한 이 단체 회원들(이들은 80%이상이 전전 한 직장인이라고 한다) 47명을 강제연행하여 45명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즉석에 넘겨 구류 또는 별금을 물게 하였다.

이러한 일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반민주, 반인권 폭거였다. 공안탄압은 계속 이어져 5월 30일에도 ‘사노맹 영남준비위’ 5명, ‘해방노동자 통일전선’ 4

명, 그리고 6월 5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2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러한 잇단 구속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현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단과 전횡, 반민주 행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 를 넘기기 위해 용공사건을 만들어 내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문민정권 4년째 맞는 올해만해도 5월까지 233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으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126명이었다. 특히 충선 뒤 4, 5월 두달 동안에 129명(이중 국보법 54명)이나 되어 96년 1, 2, 3월에 비해 하루평균 구속 비율이 두배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위에서도 밝혔듯이 5. 7 치안장관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지시, 5. 10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 회의에서 경찰청장 지시, 5. 17 공안유관부처 회의에서 대공공안부장 지시, 즉 '불법 폭력시위, 좌의세력 엄단, 대공수사력 집중'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등 반민주 악법의 존재와 그것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것은 지난 1월부터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농민동맹, 민민학련, 민정련 광주지부, 사노맹 재건, 노나매기, 사회주의학생연맹 사건 등 대부분 관련자들이 기소 유예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대한 잇단무죄 판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3, 4전 조직사건 관련자로 이미 조직이 해체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사상 양심의 자유, 정치 단체 결성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의 원론적 제시는 제껴 두고 서도 국가존립을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이들을 구속 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이었다.

기본권 침해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여전하다. 회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 또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쟁의에서 공권력은 노동자만을 일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한일병원노조 김시자 분신관련,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현대자동차 노조 양봉수 분신관련 등으로 노조원 대거 구속에 이어 5월달엔 한국 섬유 노동조합 쟁의에서 21명을 무더기로 구속하였다.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 쟁의조정법에 따라 조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노사 당사자 자율교섭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공권력이 노동자만을 편협적으로 탄압함으로써 이른바 '신 노사관계구상' 을 무색케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와 국제사면위원회,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차례 철폐를 권고하고 있는 반민주 악법들이 그 독을 뿜어대고 있는 이땅의 인권시계는 과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문민의 허구성을 다시한번 드러내고 있다.

참된 세계화 추진은 물량위주, 힘의 논리에서가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온 보편화된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인권보장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하라.
정략적 공안탄압 그만두고 구속양심수를 곧바로 석방하라.

아들과 함께해야 할 어머니의 빛나는 새날

골수암으로 2년째 투병중

때이른 더위가 찾아와 몹시 뜨겁던 5월의 마지막날, 역곡역 부근의 이경섭 씨댁을 방문하였다. 위치만 알려주시면 찾아가겠노라고 말 쓰드렸지만 어머니는 벌써부터 골목 어귀에 나와계셨던 모양이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중 나와 우리 손을 꼭 잡으시며 반가와 하신다. 그 손을 마주잡으며, 활발하게 민가협 사무실로 찾아오시곤 했던 어머니의 건강했던 옛 모습이 떠올라 새삼 가슴이 뭉클해진다. 어머니는 그새 너무도 여위셨고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감옥 안에 두고있는 고통도 클텐데, 이처럼 어머니께 찾아온 육체적 고통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감옥 안과 밖을 넘나드는 정성어린 노력

이경섭 씨의 어머니 고순금 님(63세)은 지금 골수암으로 2년째 투병중이시다. 3남 2녀 중의 막내 이경섭 씨의 구속과 재판, 그리고 머나먼 징역살이의 시작을 보고 난 후유증이 겹쳐 쌓였던 것일까. 막내아들이 없는 회갑상을 쓸쓸히 받은 어머니는 이경섭 씨의 형, 누님들의 권고로 종합검진차 병원에 들르셨다. 아들과 떨어져 있는 현실이지만, 검진도 하고 예방도 하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이겨내리라는 생각으로 들어섰던 병원문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청



▶ 골수암으로 2년째 투병중이신 고순금 님(63세). 이경섭 씨와 어머니의 병환이 나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어머니는 더 나빠짐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반드시 건강을 되찾으실 것이다.

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골수암이란 진단과 이 병원에서는 어려우니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의사의 침통한 목소리로 권고하였다.

여러 병원을 거쳐 서울대 병원까지 찾아갔지만 '2년을 넘기기 어려우리라'는 엄청난 결과가 들려올 뿐이었다.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경섭 씨는 '펄쩍펄쩍 뛰면서' 울부짖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운명 앞에 다가온 엄청난 일을 속수무책으로 전해 듣기만 할 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나, 아니면 그 앞에서 함께 평평 목놓아 울어버릴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설사 그 자신에게 그러한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처럼 절망적이고 답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감옥

안과 밖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은 그처럼 비정하게 높기만 했다.

이경섭 씨는 매일같이 편지를 띠웠다. 때로는 고통에 젖어, 때로는 힘없는 위로의 말과 회한이 담긴 편지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병환을 계기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민족 의학에 관한 공부를 끈질기고 속도감있게 해나갔다. 그것은 단지 기나긴 감옥 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노력만도, 평소에 관심있었던 분야의 공부를 깊이있게 해두겠다는 결심 만도 아니었다. 그 자신과 어머니 앞에 다가온

절박한 운명 앞에 일분 일초의 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반드시 그 병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긴박한 목적의식이 담긴 탐구였고 노력이었다. 일고여덟 장은 보통으로 넘나드는 이경섭 씨의 편지를 보면 그 열의와 자상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성어린 노력을 계속 보태졌다. 이경섭 씨와 함께 있는 갇혀있는 양심수들도 중국, 일본에서 발행한 책들까지 연구해 보면서 어머니의 병환이 나아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이 있는 출소한 양심수들 까지 연줄연줄로 인연은 이어졌다. 그리하여 지금 어머니께서는 지난해 출소한 양심수 선생님의 도움으로 식이요법과 음뇨법, 여러가지 약초와 놀맛사까지 등을 하고 계시다. 어머니의 병세는 2년이 지난 지금, 병원에서도 말하기를 예전과 비교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 혈색도 차츰 좋아지고, 거동도 많이 자유로워지셨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한데 모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더 이상의 악화는 없으니 조만간 어머니는 반드시 좋아지시리라 믿는다.

너무나 보고 싶은 막내

“경섭이만 집에 있으면 온집안이 꽉 차요. 아플 때도 가끔씩 그 큰 목소리와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는 막내아들 이경섭 씨(31세)는 지금 10년 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어머니가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신다는 이경섭 씨의 사진, 활짝 웃는 그의 표정에 씩워진 안기부나 검찰의 엄청난 혐의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착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막내아들 경섭 씨는 84년, 인천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생운동에 본격

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86년에는 ‘애학투련’의 공동의장으로 건국대 시위를 주도했다하여 첫번째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학생들이 무시무시하게만 나오고 경섭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성동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갔는데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거에요. 영치금을 넣어주긴 했으나 우리 아들이 도대체 여기 있거나 한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보는 사람마다 울면서 매달렸더니 마침내 면회를 시켜주더군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본 경섭이의 그 참혹한 모습이란… 난 아마 그때 내 평생 눈물이 다 말라버렸을거에요.”

하지만 그렇게 쏟고도 마르지 않은 어머니의 눈물은 1992년, 대선을 앞둔 당시에 일어난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이경섭 씨가 또다시 구속된 슬픔을 맛보아야만 했다.

이경섭 씨의 재판을 회상하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검사가 재판부에게 무기징역형이라 말했을때, 난 내 평생 처음으로 하늘과 땅이 맞붙는 줄 알았어요. 법정의 천장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바닥과 맞붙고 사방이 노래지더군요.” 아들은 아들대로, 어쩌면

자신의 자유가 평생토록

제한될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도 어머니 걱정에 안절부절이었다. ‘어머니가 그때 쓰러지시는줄 알았다’고 이경섭 씨는 뒤에 이야기했다.

결국 그에게는

10년형이 선

고되었다. 평

생 큰소리 칠

▶ 이경섭 님(31세).
“경섭이만 집에 있으면 온 집안이 꽉 차요”.



일 한번없이 착하게만 자라준 사랑하는 '막둥이'에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다시 건강해진다면…어머니의 소망

어머니는 아들의 석방운동과 민가협 활동도 열심이셨다. 민가협 식구들은 누구나 어머니의 서글서글한 목소리와 넉넉한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다. 다른 구속자들의 가족에게도 어머니는 자상한 정을 쏟으셨다. 이경섭 씨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집이 강원도인 한 양심수에게는 따뜻한 솜옷을 직접 넣어주었고 지금 출소한 그는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편지와 전화연락을 해오고 있다. 또 다른 양심수의 아내는 친정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따른다.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딸에게 닥친 일처럼, 때로는 아내에게 고생을 너무 시키는 그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하고 덧붙인다. 하긴 무기수의 젊은 아내가 왜 안스럽지 않겠는가.

병환으로 인해 한동안 활동이 뜸하실 수 밖에 없으셨던 어머니는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오시며 민가협의 일들을 궁금해 하신다. 얼마전 서울대에서 '장터'를 열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휴, 내가 거기에 갔었어야 하는데. 그땐 참 좋았어요. 우리 경섭이 또래의 학생들에게 떡볶이도 주고, 빈대떡도 넉넉하게 부쳐주고, 학생들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르고 또 얼마나 잘먹는지. 내년엔 꼭가고 싶어요.” 하신다. 비록 지금은 11kg이나 체중이 줄어들었고 흰머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 처음엔 알아보기조차 힘들지만, 어머니의 서글서글한 목소리를 듣는다면 누구나 금방 “경섭이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어머니는 반드시 좋아지시리라 믿는다. 다시 민

가협의 모든 어머니들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누시고 '장터'에도 오시고 넉넉한 부침도 부쳐주실 것이다. 또한 많은 젊은 양심수의 아내, 가족들에게 든든한 위안이 되어주실 것이다.

어머니는 5월초, 모처럼만에 아들을 만나려 전주까지 다녀오셨다. 처음 어머니에게 내려진 엄청난 병의 선고를 생각해볼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차츰차츰 회복되어갈 것이다. 이경섭 씨는 꾸준히 어머니의 병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양심수들이 그러하다. 그와 인연이 닿은 출소한 양심수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망…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아들과 함께 빛나는 새날을 보셔야만 한다. 그리고 건강히 그 모든 날들을 누리셔야만 한다.

“금번에 맞는 생신은 어머니께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랄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것 같은… 먼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축하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럽지만 어찌겠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뵙고 보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보다 훨씬 힘있고 생기있는 모습이어서 말입니다. 머리가 호호백발이고 비쩍 마른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시다면 제일이지요. 차라리 예전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편이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힘있고 활기찬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병이 다 나으시면 더욱 건강해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쇠녕 어리가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풀무질을 견디어 내듯이 말입니다. 저 역시 이런 옥살이 경험이 더욱 저를 단련시켜 더욱 다부지고 굳센 제 인생을 만들 어가는 과정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96년 5월 22일자 이경섭 씨의 편지에서)

지난해 11월 21일, 민중정치연합(이하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13명은 아침 출근시간을 시작으로 전남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연행 이유는 민정련이 '사노맹 재건'을 위한 이적단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경찰들은 판사에 의해 영장신청을 기각당했습니다. 경찰은 48시간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노맹 재건'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판사는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행된 회원들은 전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경찰은 다시 다른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으로 6명의 회원을 구속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수배를 하였으며 96년 1월경 수배중이던 3명의 회원이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정련이 '사노맹' 재건을 위한 활동을 해왔던 이적단체이며 저희들 역시 이적행위를 해왔다는 혐의사실이 전혀 근거없는,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회원 체육대회, 여름수련회 등 민정련의 모든 회원 활동을 사노맹 같은 비합법 조직활동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만기출소한 고원씨를 환영하기 위해 대구교도소에 마중 나간 것이나 석방 환영회를 회원들이 조촐하게 마련한 것을 가지고 '사노맹 재건을 위한' 모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이라는 비인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8조 회합, 통신)를 둘러 써웠습니다.

둘째, 구속되었던 김기천 회원의 공소장에 의하면 94년 4월부터 김기천 회원이 '이적도서' 등을 가지고 회원들과 수차례 학습, 토론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천 회원은 92년 구속되어 94년 10월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므로 회원들과 학습, 토론하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셋째, 경찰 수사자료에 의하면 '사노맹 합법성 쟁취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지부 회원들이 '사노맹' 합법화 투쟁을 하였다는 진술을 강요하였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속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진술을 한 사람이 없음에도 공소장에는 근거 하나 없이 우리가 '사노맹 합법성 투쟁'을 했다고 명시해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주장만으로는 재판부에 '사노맹' 재건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검찰은 96년 4월 19일, "민정련이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 공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노맹 뒤에 사로청이 있고 그 뒤에 김정일이 있다'는 식의 무식한 모총장같은 발상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변경이 있자 재판부에서는 민정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선고를 연기하였고 1심 재판의 만기일이 되자 당시 구속자 8명 전원을 판사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처럼 문민정부에서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조작으로 무고한 사람을 무조건 잡아 가두고 보는 공안 수사기관의 구태는 아직도 자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한 조작구속 수사를 중단해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며 우리의 억울함도 날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탄탄히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편집부



▲ 젊은 날의 박봉현 선생님.

나도 학교 보내주세요

“아부지, 나도 학교 보내주세요. 다른 애들은 다 책보 메고 학교 가는디… 나도 학교 땡기면서 공부하고 싶은디… 아부지, 예? 나 이 제부터 학교 보내 줄 때까지 일도 안코, 밥도 안 먹을라요.”

다른 또래 소년에 비해 체구는 작지만 방금 까놓은 알밤처럼 아무따진 열네살 소년의 고집이 막무가내다. 돌멩이처럼 단단한 고집이다.

“이게, 내 단식투쟁의 시초입니다. 그때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점쟁이 덕에 내가 ‘빨갱이’가 됐는지도 모르지, 그 점쟁이가 ‘야는 공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한마디 안했으면 나도 형님들처럼 농 사나 지으며 살았을 란가……”

멀리 서울에서 전주까지 ‘손님’이 온다면 미리 담가둔 솔잎주를 따라주시는 박봉현 선생님(78세)의 이야기는 60여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생님은 전북 순창에서 민족독립의 기운이 거세게 일어나던 1919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 저것 내라는 것이 많으니, 집안에 고지서 읽을 수 있는 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맏아들만 겨우 보통학교에 보낼 정도로 가난한 농민의 세째 아들로 태어난 선생님에겐 진학의 기회가 주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억지고집으로 뒤늦게 시작한 ‘배움’은

선생님을 자꾸 자꾸 거센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다. 열다섯살 늦깎이 학생으로 보통학교 3학년에 입학한 선생님은 고학으로라도 더 배우겠다는 욕심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 갈 결심을 했다.

배고픔보다 참기 어려웠던 민족차별

“일본으로 가는 일부터가 보통일이 아니드만요. 생판 처음 기차를 봤으니… 처음엔 빼이익 소리내며 검은 물건이 화 달려오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갔을까….”

난생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처음보는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간 선생님은 신문 배달, 막노동, 공장취직 등 거친 허드렛일을 하며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죽지못해 살 정도’의 배고픔보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펑박과 치욕이 더 참기 힘들었다. 그러나 펑박 속에서 견실한 민족의식이 움트기 시작했고, 모욕적인 민족차별은 저항심을 불러왔다. 선생님이 진보적인 사상을 접한 것도 이 즈음이다.

“당시 러, 일 유화 분위기를 타고 막스·레닌의 저서들이 일본으로 복불처럼 터져 들어왔습니다. 그땐 『자본론』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책읽기를 좋아해 자연스레 막스·레닌의 저서를 두루 읽게 됐죠.”

중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은 여러 유수한 대학에 입학지원서를 내지만 매번 낙방한다. 중학교 재학시절, 조선학생 차별에 항의하며 파업에 참가한 것이 낙방의 원인이었다.

결국 선생님은 대정대학 고등 사범과에 입학

하셨다. ‘이번에도 네가 1등을 했지만 조선인에겐 1등을 줄 수 없어 다른 실기 과목 점수를 깎아 네가 2등을 한 줄 알고나 있으라’며 알려주던 양심적인 학교 선생님의 권유를 따라서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41년, 학도군으로 징병되는 것을 피해 중국으로 가셨다.

그간 편지연락을 하고 지내던 은사님 댁에 기거하며 선생님은 막노동으로 생활을 꾸려 가셨다.

그리고 45년 해방되던 해, 선생님은 은사님의 따님이신 정순희(71세)님과 결혼을 하신다.

“그때는 아주 미남이었죠. 지금은 늙어서… 일본서 건너올 때 딴 것 아무것도 없고 책만 2고리짝 가져온 사람이니까… 그때도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첫눈에 반해 선생님과 결혼을 결심했다는 정순희 님은 스무살적 수줍음을 보이며 말씀하신다. 당시 교원생활을 하던 정순희 님은 91년 퇴직을 할 때까지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교편을 놓으신 적이 없다.

해방을 만나 조국으로 돌아온 선생님은 다시 연희전문대학(현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하신다.

“수업은 거의 못 들어갔죠. 주인만 바뀐 조국의 상황에서 조용히 앉아 수업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연대, 이대, 숙명여대 등의 학생을 조직 교양하는 일을 맡아 돌아치다 보니 파업할 때나 학교에 갔어요. 물론 파업을 주동하러 갔지만요.”

47년 간신히(?) 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은 순창으로 내려가 교원생활을 하다 전쟁을 맞는다.

그리고 50년 9월,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간다. ‘방금 옆에서 같이 얘기하며 걷던 친구가 몸은 날라가고 옷만 나뭇가지에 걸려있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응단폭격을 구사일생으로

피하며, 평양에서 재령 건설전문학교 교원으로 생활하시던 선생님은 54년, 통일에 한 힘을 더하기 위한 마음으로 남으로 온다. 그리고 60년, 선생님은 체포되어 무기형을 받는다.

박봉현 선생님의 꽃밭

31개 성상 옥살이를 치루시고

이제 바깥세상

선생님은 나왔는데

선생님의

세수하려 나갈 때 빨래하려 나갈 때

출방의 기회마다

가꾸던 꽃밭

그때 그 자리

굳게 닫힌 철문만 간막아진 그대로

높은 담장 안 간막아진 그대로

빛과 향기 예대로 밟하고 있을거다

역사처럼 영원처럼

밟하고 있을거다.

(이광웅님의 시)

담안에서(선생님은 ‘감옥’이란 말 대신 ‘담안’, ‘담밖’이라 말씀하신다) 선생님은 꽃을 키우셨다. ‘아무리 가혹한 탄압속에서 생활일지라도 아름다운 정서마저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에서, 또 운동시간만으로는 별 짤 시간이 너무 짧아서였다.

채송화도, 해바라기도, 오이도, 호박도 담안에서 쑥쑥 잘 자랐다. 재소자들이 먹고 남은 찐밥과 인분만 주는데도 식물들은 무성하게 잘 자랐다. 선생님은 잘 자란 ‘담안’ 꽃씨를 받아 ‘담밖’으로 보내기도 했다. ‘담안’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민가협 어머니들 마당에도 꽃을 피우라고. 지금도 민가협 사무실은 선생님이 농사로

손수 지어 가져다주신 불그스레한 결명자차를
끓여 마신다.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기를 서른 한 번.
선생님은 91년 12월, 비전향자 가운데서 '노약자, 병약자'로 포함되어 32년만에 '담밖'으로
나오셨다. 그렇게 꽃이 피고 지는 동안, 선생님
은 '담안'에서 '고희'를 넘기셨
다. 그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를 범하건만 집
안의 희망이던 선생님
의 감옥생활을 두고
단 한 번도 '나쁜 놈'
이라 말씀하지 않으시던
선생님의 부모님도 세
상을 떠나셨다.

"내가 담 안에 들어
갈 때 막내 아들이 갓
100일이 지났는데 나와보니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되어 있더군요. 내가 담 안에 있
느라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한게 물론 몹시 미안
하지만, 아이들을 불러 놓고 얘기했습니다. 큰
사랑안엔 작은 사랑이 함께 하는 법이라고 했
다. 애비노릇 못한 것, 효자 노릇 제대로 못했
지만 조국사랑이라는 큰 사랑안에 부모님, 너희
들에 대한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었음을 이해했
으면 한다. 너희에게 선물 한번 못주어 미안하
지만 이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
고 싶구나. 그것은 내 건강이다. 이것이 유일한
선물이다고요. 아이들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
며 이해를 해주더군요."

선생님은 건강하시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
답지 않게 부지런하고 행동이 빠르다. 천성으로
타고난 '농민의 피' 때문이라 하신다.

선생님은 요즘도 밭에 나가 일하신다. '50년
의 결혼생활 중 지금이 가장 길게 함께 살아 보

는 거'라 말씀하시는 정순희 님께서 퇴직금으로
사 놓으신 200평의 밭을 일구신다.

정순희 님의 지고한 사랑과 '그렇게 고생만
시키' 고도 당당한 박봉현 선생님의 의연함이 눈
부시도록 곱다. 감히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을 만
큼 짚다.

선생님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
속 움직이신다. 그러나 선
생님은 밭에만 계시지
않는다. 틈나는 대로
전주교도소로 동지들
면회를 간다.

"내가 담밖으로 나와서
아직까지 모교인 연세
대학을 가 보지 않았습
니다. 아직 감옥에 있
는, 학교 후배인 김성

만(구미유학생 사건으로 1985년 구속)이 먼저
나가는 나를 보고 부탁을 하더군요. '선배님,
나가시더라도 혼자 학교에 가지지 마십시오. 제
가 나가거들랑 그때, 저와 함께 모교를 거닐지
요'라고. 내가 선배로서 그정도 약속은 지켜줘
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학생들이 줄줄이
감옥에 들어 올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박봉현 선생님.

'우리가 더 탄탄히 길을 닦아 놓지 못해, 학
생들이 공부를 제쳐두고 싸우다 감옥 안으로 끌
려 들어오게 한겁니다.'

가을쯤 선생님을 뵈러 갔으면 나도 꽃씨를 받
아 왔을 것이다. 우리 집엔 마당이 없지만, 작
은 화분에라도 꽃씨를 심고 선생님의 말씀을 두
고 두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탄탄히 길을 닦아 놓지 않으면…….'
가을의 전주행을 다짐해 본다.



▲ 첫눈에 반해 결혼을 했고, 박선생님이 '담밖'으로 나올때까지 교편을 잡
으며 옥 뒷바라지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운 정은희 님(71세, 오른쪽)과
박봉현 선생님(78세)

감옥에서 온 편지 - 김동기(광주교도소 수감중)



보내주신 소포는 5월 17일 감격속에 받았습니다. 가벼운 상자 소포여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일까하는 호기심속에 열어보는 순간 와- 하는 합성과 함께 “그 성의 정말 고맙다” “그 성의 대단해 대단해” 모든 사람들이 감격의 말을 한마디씩 하면서 잎이 바싹 마르고 약간 습기 있는 검은 색으로 변한 장미꽃에 향기가 있는지 코 끝에 대어보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 모든 사람들은 충심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냅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버이날 세사람으로부터 꽃을 받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선물과 축하인사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장미꽃 소포까지 받은 만큼 어버이날을 우리처럼 멋지게 보낸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 가슴에 꽃 한송이 달아드리던 처지에서 꽃송이를 받아야하는 위치로 변하여도 마음만은 지금도 어린시절 그대로여서 부모님 그리워짐은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위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면 마음속으로 어머니! 아버지! 애타게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불러보는 세월도 30년 되지만 다정한 어머니, 엄하신 아버지 모습만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곳 젊은 사람중에서는 어려서 아버지와 사별하였기에 아버지가 그리워 앞으로 저보고 김선생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독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애타게 부르던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 호칭을 받는 것이 부모에게 불효되는게 아닐지 몰라 마음은 망설이게 됩니다. 그들의 성의에 냉정한 것 같기도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제 그리움이 흐려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오늘의 아이들이 먼 훗날 아버지 할아버지가 된다는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영원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이제 장미꽃 소포 이야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추가하여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을 바랍니다.

1996년 5월 20일 김동기 드림

- 김동기 님은 1932년 함북 김책시에서 태어나 1966년 체포되어 무기형을 받고 현재 31년째 수감중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후원회에서 장기수 분들께 장미꽃을 보내드렸는데 그에 대한 화답의 글입니다.

어느 선배가 그랬다. 어떤 일이 든 깃발같은 존재도 필요하지만, 그림자같은 존재도 필요하다고. 앞에 나서지 않지만 늘 숨어 일하며 그 일이 완성되도록 온갖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림자같은 존재를 두고 한 말이었을 것이다.

양심수후원회의 많은 회원들이 모두 그림자이겠지만, 그 중 자신의 몸을 뉘워 그들을 만들고, 그 그늘로 오랫동안 갇혀있다 풀려난 장기수 선생님들의 시원한 울타리를 치고자 하는 이정태 회원(32세)을 만났다.

이정태 회원은 멀리서 봐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무협지에 나올 법한 독특한 차림새 때문이다. 흔히 볼 수 없는 개량 한복에, 끈을 꽂 조여맨 작은 운동화, 검은 보에 쌈 검도를 척 둘러 매고 사뿐사뿐 걷는 품이 납다르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이정태 회원은 말소리가 참 구수하다. 악동 같은 미소와는 영 딴판이다. (그 은근한 사투리를 그대로 받아 적을 능력이 없음이 아쉽다)

“내가 광주에서 백골단이었다면 믿겠습니까? 그것도 운동권 사이에 ‘공포의 곱슬머리’라고 불릴 만큼 날렵하고 우아스런 백골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골단이었던 거죠.”

고등학교 시절 태권도부에 들어가 주먹을 기른데다(?) 타고난 날랜 다리로 육상선수를 지냈다 하니, ‘백골단 이정태’의 활약상은 안 봐도 알 듯하다.

이정태 회원은 머쓱한지 곱슬 머리를 긁적인다. 투철한 책임정

신으로 운동권을 잡던(?) 이정태 회원의 의식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때이기도 하다.

“86년도엔가 전남대 학생회관을 불시에 들이 닦쳐 시위물품과 소위 ‘불온서적’을 탈취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불온서적’ 중에 변증법 어쩌구하는 책도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인데, 그냥 내무번에서 심심하길래 『태백산맥』을 읽다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다양한 시각이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가 아닌 ‘쓰여지지 않은 역사’도 있다는 걸 어렵잖이 알았죠. ‘탈취’ 해 나온 책이 7권이었기 때문에 7권부터 읽었죠. 읽다보니 재미 있길래 휴가 나와 동생에게 빌려 1권부터 읽었구요. 또한 이른바 ‘불법유인물’을 심심할 때마다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전남대 87학번인 동생과의 대화도 그동안 학교교육이나 군복무 과정에서 ‘세뇌’ 당한 의식을 깨는데 도움이 되었고요.”

제대후 복학(경희대 수학과)한 이정태 회원의 생활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해갔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고리타분한 책은 딱 질색인 체질’이라 농활, 파업지원, 수배된 지도부 경호 같은 실천과 싸움으로 의식을 키워간 대학 생활이었다.

그의 현재 직업은 경당 사범이다.

‘경당’은 고구려시대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서민 교육기관이다.



이정태 회원을 찾아서
편집부

그러나 현재 '경당'은 민족 무예를 연마하는 수련장의 이름이다.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입동규 선생님이 감옥 안에서 10여년이란 긴 시간동안 복원에 힘쓰다 출소후 도장을 차리신 것이다.

"90년 범민족대회에 참가해 '경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회 중에 너덜너덜한 신문이 옆에 있길래 그냥 주워 읽다 보니 거기에 경당에 대한 짧은 기사가 있더군요. 입 선생님이 광주에 도장을 차렸다는 얘기도 실려 있고. 전통무예에 관심이 가길래 광주로 선생님을 찾아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정태 회원은 입동규 선생님께 민속무예인 24반무예(조선시대 병사를 훈련시키던 민족무술)로 영정조때 정리됨)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배웠다.

"92년돈가? 하루는 경당에 여러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 자리엔 다른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이 7, 8분 쯤 계셨어요. 그 분들이 징역사신 햇수를 합쳐보니 200년이 넘더라고요." 하하하하! 허탈한 쓴 웃음. 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장기수 선생님들이 감옥 산 햇수가 이번엔 몇천년이 될 지 모르겠더란다. 다시 쓴 웃음.

마침 그 자리에서 양심수후원회 회장인 권오현 선생님을 만났고 이정태 회원은 양심수후원회 회원이 되었다.

"저는 후원회에 들어와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엔 고집이 엄청나게 썼는데 지금은 거의 고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장기수 선생님들을 보며 고집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유순하고 다정다감하실 수가 없는데 사실 선생님들이야말로 자신의 신념에 대한 고집이 정말 센 분들이지요. 나는 그동안 '고집이 세어' 보였을 뿐이죠. 그런 고집은 주위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주위사람을 멀어낼 뿐이고요. 성격을 차츰 바꾸고 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생겨 좋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후원회를 통해 또 많은 것을 얻었으니 열심히 활동해 되갚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정태 회원.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지난 한 해 동안 회비 한번 못낸게 적이 미안하다는 이정태 회원(가난한 그는 이번달에 경당에서 받은 약간의 돈을 조개고 조개 6월 회비를 냈다).

그러나 선생님들에게 궂은 일이 생기거나 민가협의 크고 작은 행사, 후원회 산행 등에서 그가 빠지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론 아닌 가슴과 온몸으로 투쟁을 한 20대처럼,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일에 그는 '몸'으로 때운다.

지난해 양심수후원회 제7차총회에서 이정태 회원은 모범회원에게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1994년 7월, 낙성대 만남의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맨 먼저 달려가 들어내고 치우고 새로 짓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에 대한 감사패였고(그 때 이정태 회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고생했다. 경당 사범을 비롯해 수련생들, 심지어는

광주에 있는 여동생 지우까지 그 무덥던 여름날에 만남의 집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와야 했으니까) 회원들은 누구나 고개를 주억거리며 큰 박수를 보냈다.

'난생 첫 받는 상이라 이거 영 쑥스럽다'며 진짜 얼굴을 붉혀 주위사람들을 다 웃게 했던 이정태 회원. 산행도중 다리에 쥐가 난 선생님을 엎고 성큼성큼 산을 내려 가던 힘직한 이정태 회원.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선생님과 함께 '꽃잎'도 아닌 '투캅스 II'를 보고 나와 "선생님, 진짜 재미있죠?"하며 밉지않은 능청을 떠는 이정태 회원. 후원회에 들어와 무슨일인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몰라하는 회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만나고 밤 늦도록 전화를 해 "네가 꼭 해야 할 일이야"하며 명령(?)을 내리는 이정태 회원.

그의 말이 맞다.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건 형식적인 인사차례나 하는 후원회원이 아닌, 함께 삶을 나누는 짧은 통지로서 후원회원일 것이다.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선생님들과 길을 함께 가는 짧은 '동지.'

회비를 몸으로 '때우는' 그는 오늘도 바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호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렛대를 세우러 간다면 또 부산하게 일어선다. 그의 등뒤를 본다. 오후 햇살을 받아 길어진 그의 그림자가 살랑이며 들어온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밖에 모르고 사람 사이의 정이 메밀라 있는 세상 속으로.

“민족은 창공처럼 엄숙하고 영원하다”

안소영(29세, 회원)

1994년 9월, 윤이상 선생님의 음악제는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지만 귀국은 무산되었다는 짧막한 소식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그 해라면 이 나라는 때아닌 냉전 광풍에 뜨거울대로 뜨거웠던 즈음이었다.

한평생 민족과 통일을 열망해왔던 노음악가가 귀국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지러웠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신문 기사 몇 구절로만 접했던 소식의 이면에는,

고국에 대한 한 사람의 오랜 기다림과 처절한 염원이 피맺하게 담겨있었다. 자신과 자신의 음악을 길러준 고향 바다와

고향 땅을 수십 년 동안이나 영원히 밟을 수 없었던 것은 그 한평생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었을까.

책의 첫장을 넘기면서부터 나는, 그때의 신문 기사를 그저 눈으로 읽고만 넘어간 내 덤덤함에 대해 자책해야만 했다.

이 나라의 상황은 아직도 그렇지 않느냐는 ‘냉소주의’ 만으로는 도저히 변명이 되지 않는다.

고향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고향 앞바다, 흙빛, 두런두런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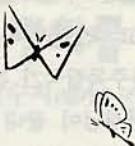
냄새, 그 모든 것들이 미칠듯한 그리움으로 시도때도 없이 불쑥 다가오는 것이란걸. 특히 사람의 자유로운 감성과 발길이 갖가지 제한과 금지로 가로막혀 있을때 그 그리움은 더욱더 깊어가고 병이 되어 쓰인다. 30년, 자신이 스스로 유학길에 오른 10여 년의 세월을 포함하면 인생의 절반이 훨씬 넘는 40년 이상을 그는 고향땅을 밟지 못했다. 그나마 고향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고국에서의 22개월 간의 감옥살이 덕분이었다.

세계적인 음악가를 법정에 세우고 사형까지 구형받게 만든 것은 이른바 ‘동백립’ 사건이었다.

‘동베를린’을 한문식으로 표현했던 시절의 오래된 그 사건을 내가 눈여겨보게 된 것은, 발생한 낸도가 내가 태어난 해와 일치한다는 공교로운 이유에서였다. 1967년, 바로 그 해에 그는 차기운 독방에서 음악과 조국에 대한 가슴터질 듯한 열정과 절망에 신음하고 있었다. 내가 자라 내 나라의 산과 들을 그저 심상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더욱 자라 ‘조국’이라던가 ‘민족’이라던가 하는 말이 주는 의미를 새삼스럽게 새기고 있을 그 모든 오랜 나날 동안 그는, 베를린 하늘 아래 혹은 어느 이국의 하늘 아래에서 돌아갈 수 없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에 뒤척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 속에 언제나 조국을 담으려 노력하였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의 음악은 문화와 전통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군사정부는 불법적인 체포와 고문, 엄청난 사건의 조작으로 한 위대한 음악가의 육신과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다.

상처는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그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졌을 그 당시, 열다



섯살의 딸은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열세살이었던 아들은 학교 기숙사에 있었다. 부인마저 영문도 모르는채 끌려가 한국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아무런 설명을 듣지도 못한채, 줄지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은 충격과 놀라움에 절망하였다. 더구나 그곳은 그들이 아직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독일, 낯선 이국땅이 아닌가.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의 절망으로 인한 아들의 방황은 두고두고 그를 괴롭혔다. 군사정부는 강제추방조치로 그가 아들로서 부모님의 산소로 가는 그리움의 길을 막았다. 또한 어린 아들에게 이처럼 공포스러운 기억의 징애물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아들에게로 가는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길조차 가로막았다.

하지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그의 노력은 그침없이 계속되었다. 독일의 집 정원에 한반도 모양의 연못을 만들어 놓고 고국을 그리워했듯이, 남쪽도 북쪽도 그에게는 하나의 조국이었다. 또한 남, 북, 해외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큰 기둥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음악과 민족은 하나였다. 그리고 그 민족은, “창공처럼 엄숙하고 영원한” 것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고국을 그리며 이국땅에서 그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고통스러워해야만 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 「화염에 휩싸인 천사와 에필로그」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곡의 분위기라면 느낌을 알 것 같기도 하다. 지난 1999년, 이땅에서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은 이제 끝이나 야 한다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화염에 휩싸여갔다. 먼 이국땅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노음악가의 비통함이 어떠했을까. 그는 자신이 동포를 위해 쓴 최후의 관현악곡이 되리라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 곡을 썼다. 그것은 또한 민족연대를 위해 이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절절한 호소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마치 한 편의 음악과도 같다. 윤이상 선생님의 고향 통영 앞바다와 부산, 파리, 서대문 구치소 그리고 베를린, 평양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기억과 꿈, 현실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오고간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 아이들, 벗들은 소설의 적절한 자리에서 숨쉬며 그의 일생을 한 편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켜 나간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윤이상 선생님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이해와 애정, 존경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이 민족에 대한 윤이상 선생님의 무조건적인 이해와 애정, 존경이기도 하다.

분단 50주년이 이렇게 마감되고 마는걸까 하는 슬슬한 생각에 잠겨있던 우리는 지난해 초겨울, 윤이상 선생님의 별세를 알리는 비보를 들었다. 그는 끝내 고향땅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일생은 정녕 나비의 꿈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 꿈이 향하는 곳은 아득한 저 창공, 상처입은 민족이 그 상처를 회복하고 본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으로 빛날 통일된 조국의 하늘이리라 생각해 본다.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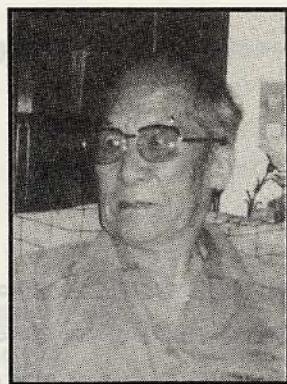
오랫동안 신경통과 간헐성 협심증으로 투병해 오셨던 초사(草史) 김도한(金度漢) 선생님께서 82년 이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운명하셨습니다. 봉건왕조의 이름난 사대부 집안이며 지주였고 '인텔리'라는 신분으로 결코 쉽지 않았던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과 자주독립국가 건설,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숱한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던 선생님이 끝내 통일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한많은 생을 마치셨습니다.

선생님은 1915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심양으로 끌려가며 '연군가'를 불렀던 척화과 김상현의 12대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증조부가 영의정을 지낼 정도로 사대부 집안이었지만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크게 감동받아 민족적 자각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비밀독서회 활동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자주 드나드는 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1934년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진보적 세계관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활달하고 호방한 성격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영화, 연극, 운동 등 문화적 활동에 심취되기도 했으며 정치, 경제, 역사, 문학 등 많은 책을 꽃넓게 읽으면서 일제가 폐망하자 해방된 조국에 큰 일을 하려는 의지로 아버님을 설득, 많은 재산을 진보운동에 쓰기도 하셨습니다.

단독정부 수립 후 중앙청 외자총국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1949년에는 '중앙청 프락치' 사건으로 체포되어 살인적 고문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당한 고문이 돌아가실 때까지 심한 신경통과 협심증으로 고통당한 요인이었습니다. 해방과 분단, 이어진 전쟁. 선생님은 그 어느 시기에도 역사를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통계처, 노동청 통계부장을 맡아했고 인민경제대학에서 수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57년 남으로 내려와 마곡사에서 승려생활을 하던중 1960년 체포되어 전향공작의 온갖 고초를 극복하며 28년 동안 옥고를 치루다 사회안전법이 철폐된 1987년 감옥문을 나오셨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놀랄만한 기억력, 끝없이 이어지는 그 숱한 이야기도 이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의 유언에 따라 선생님의 옥중동지들과 후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되어 유골을 선영 묘역에 합장해 드렸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고 김도한 선생님 약력

1915년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태어나심
1922 ~ 37	서울 교동 공립보통학교, 제일교보, 보성전문학교 수학
1937 ~ 45	경성부청 조선교역 근무
1945 ~ 50. 6	조선교역 서울상사, 조선무역 경제연구소, 외자총국 감사관 역임
1950. 9	외자총국 차지위원장
1950. 9 ~ 57	연백군 인민위원회, 평양시 통계처, 대성산 목장, 삼신탄광, 인민경제대학 수학
1957 ~ 60	남으로 내려와 마곡사에서 승려 생활
1950. 4	체포
1987. 12	28년 옥고를 치루고 출소

광주에서 열린

‘5.18 정신계승,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 청년 캠프’

김수지(민가협 국제연대 간사)

‘광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등산, ‘꽃잎’, 망월동, 광주민중항쟁 예, 올해는 광주가 국제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광주항쟁 기념주간에 광주 ‘시민연대모임’과 무등일보사 주최와 광주시, 5.18기념재단, 한겨레 신문사와 광주문화방송의 후원으로 열린 올해 제1차 국제 청년 캠프는 ‘5.18정신계승, 인권과 평화’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인권과 평화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실무자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캠프는 미국,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와 아일랜드를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한국, 필리핀, 부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싱가포르, 일본, 스리랑카와 동티모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 미국, 독일과 일본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도 많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해외 동포들에게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전달하고 외국의 인권상황을 교환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인권과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맺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풍습과 문화 및 언어를 있는 캠프 참가자들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는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청년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참가자 일동은 마지막날인 19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어떤 이유로든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UN 회

원국가들에게 인권침해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 했고 모든 국가들은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국제인권법 기준에 상응하는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5월 민중항쟁에서 보여준 항쟁정신과 대동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함께 자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새 친해지기도 했고 5.18전야제, 5.18 기념행사, 망월동 등을 참석하고 참배하면서 피부색깔은 달라도 인권을 생각하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더 치밀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통역 또한 모자란 점이 있어서 최초로 광주에서 열린 국제 행사가 좀더 효과적인 진행이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제연대의 중요성이 근래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의미있는 발전이라 하겠지만 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좀더 성실한 계획이 부족하다면 국제연대는 성장할 수 없을것이고 오히려 국제연대의 의미를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국제캠프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로 할것이고 준비과정은 관련된 여러 단체의 적극적인 도움, 지지, 및 후원과 참여가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국내연대가 없는 국제연대는 힘이 없으니까요.

이런일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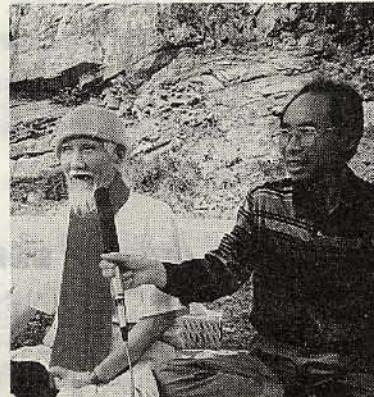
술준 일의 있었습니다

- 1 - 세계노동절 제106돌을 맞아 민주노총은 보라매공원에서 20,000여 노동자가 함께 한 가운데 기념 집회를 갖고 노동법의 독소조항 철폐, 구속된 노동자의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 2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월, 1년 6월의 협기를 모두 마치고 만기출소한 서선원 전기협 의장이 교도소 실태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 3 - 김세진 열사 8주기 추모 모임이 열사의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 사노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노동자 시인 박노해 후원사업회 결성식이 종로성당에서 열렸습니다.
 - 광주에서 양심수 후원, 석방 사업, 인권 개선사업 등을 목표로 내세운 '인권지기'가 창립하였습니다. 광주지역의 더 나은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바랍니다.
 - 한국합섬 구미 제2공장 노조 이진권 부위원장, 서상준 회계감사가 회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분신하여 중화상을 입고 한강성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 6 - 시흥 혜명양로원으로 임병호 선생님을 방문하였습니다.
 - 대구고전 박동학(전산학과 92학번)군이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며 분신을 하였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 7 - 이수성 국무총리는 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장관회의에서 "학생, 재야 활동의 좌경화 더 이상 방치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9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합섬 노동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조 탄압에 대해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 성심병원에 입원중인 한국합섬 노조 이진권 부위원장, 서상준 회계감사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10 -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남한프롤레타리아 계급동맹 준비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미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반국가단체 동조 및 이적 표현물 취득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권소식 참조)
 - 박일룡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회의에서 "불법 시위 엄단, 검거위주 시위진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12 - 대구 김종호 선생님 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분들이 열심히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14 - 가평 대성리 '해돋이 공동체'에 계셨던 김도한 선생님께서 협심증 등 심장질환으로 82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1단독은 전교조 가입으로 면직처분 내린 것은 학교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 14 - 조성만 열사 추모 모임이 서울대 열사 추모비 앞에서 열렸습니다.
- 15 - 『후원회소식』55호를 발송했습니다.
- 16 - 고 초사 김도한 선생님의 장례식이 선생님의 오랜 옥중동지들과 후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생님 유언에 따라 회장으로 치러어졌고 피주군 광적면 선영에 묻히셨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 기무사는 비리를 보도한 시사뉴스를 상대로 민, 형사 소송에 이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17 -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자유민주체제 위협세력



척결을 위한 공안 유관부처회의에서 “최근 정치 학원 노동 재야 등 각 사회 분야에 침투한 자유민주체제 위협 세력의 활동실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말하고 유관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로 대공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8 - 5. 18 민중항쟁 16돐 추념식이 망월동 묘역에서 유족들과 시민, 학생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고 오후에는 도청 앞 광장에서 ‘5월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국민대회’가 열려 학살자들의 철저한 사법처리와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 19 - 양심수후원회 5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모두 28명의 회원이 함께하여 낙성대를 떠나 연주대와 연주암을 거쳐 과천으로 넘어왔습니다. 뒷풀이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지훈 님께 감사드립니다.
- 20 - 양심수후원회 5월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재정 및 사업보고에 이어 출소 장기수 선생님 구강검진과 민가협 회원들 종합검진을 건치와 인의협에 협조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22 - 『말』6월호를 교도소로 발송했습니다.
-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김영옥(범민련 사건 구속, 전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님 출소 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어 종로 범민련 사무실에서 이날 집행유예로 출소한 4분(김영옥, 주명순, 홍세표, 곽병준)의 석방 환영모임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 23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명이 구속된 한국노동청년연대 회원들이 함께 해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 음성꽃동네에 계신 류한우 선생님의 85회 생신을 맞아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푸른영상과 이화민주동문회 사무국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구원의 집에 계셨다가 지금은 병원 6층 병실에 계시고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 24 - 제4기 한총련 출범식이 전북대에서 학생 4만여명이 함께 모여 열렸습니다. 한총련은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의 공개사과와 5월 학살자 완전 처벌, 대선자금 공개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26 - 이재호 열사, 최덕수 열사 추모모임이 있었습니다.
- 27 - 『후원회소식』56호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적표현물 특별 단속반’을 구성, ‘좌의 인쇄물’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8 -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병권(범민련 사건 구속, 항소중)님을 면회하였습니다.
- 29 -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인 전창일(범민련 사건, 항소중)님을 면회하였습니다.
- 3, 4, 5월에 구속된 양심수 105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외국어대 용인배움터에서 박창희 교수 석방 촉구를 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 30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판사직권보석으로 출감한 장평기(광주 민정련 사건)님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나라사랑청년회의 회원들과 한청협 일꾼들이 나와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 31 - 직장임으로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계신 권양섭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 연고가 없는 출소장기수 선생님 12분과 낙성대 만남의 집에 생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 골수임으로 투병중이신 이경섭(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0년형)님의 어머니께 기족돕기 성금을 드렸습니다



96년 상반기 구속자 현황 1996년 5월 30일 현재

최근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 인권보고서

최근 시국관련 구속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4.11 총선 이후 5월 30일 까지 한달 반동안 120명이 구속되었다.〈표 1참고〉 이는 올해 초부터 4.11 총선 까지 석달 열흘 동안의 구속자 113명 보다도 무려 218%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구속자 급증 현상은 4. 24.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사건으로 11명이 구속되었고 5. 8. 전학련 사건으로 13명이 구속되는 등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로 구속자가 대량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합섬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21명 구속, 현대자동차 노조원 3명 구속, 태광산업 노조원 2명, 전문노련 소속 노동자 2명 구속 등 노동자 구속이 이어졌다. 영광 원전 관련 반대시위로 주민 3명 구속,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시위로 주민 3명 구속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시위도 형사처벌되었다. 한편 한총련 출범식과 지역 총련 출범식 직후 벌인 시위에서 학생들이 다수 구속되었다.〈표 2참고〉

3. 4년전의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대거 구속

올해 들어 발생한 시국관련 구속자 가운데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 126명이다. 이중 조직사건(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3조) 또는 이적단체구성가입(7조3항) 관련으로 구속된 사람이 85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한다.(2월과 3월 구국자주대오 3명, 5월 구국전위 사건 1명 포함)

그러나 조직사건 중에는 3-4년 전의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구속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농민·애국동맹 사건(92년), 사노맹 사건(92년) 학생 활동가 조직사건(92년) 해방노동자 통일전선(91년), 민민학련(92년), 민정련 사건(93년) 등으로 33명이 구속되어 이 시기 발생한 조직사건 구속자 총 85명 가운데 38.8%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 이 시기 국가보안법 구속자 126명 중에서 단순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7조 5항)로 구속된 사람은 38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하며 회합, 통신(8조)으로 구속된 사람은 5명으로 3.9%에 이른다.

4. 11총선 이후 공안분위기 조성이 구속사태 부추겨

이러한 구속사태의 급증 현상은 4.11 총선 이후 국무총리, 경찰청장, 대검공안부장등이 잇달아 관계 기관 회의에서 ‘폭력시위와 좌익세력 엄단’ 지시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5. 7. 치안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가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법질서를 해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경우 철저히 대응하라”는 발언한 이후 5. 10.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회의에서 박일용 경찰청장이 불법시위, 좌익세력 엄단 지시를 하였고 5. 17. 공안 유관부처 회의에서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이 “자유민주체제 위협세력의 활동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유관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로 대공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표 1〉

96년 월별 구속자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총
총구속자	28명	38명	37명	50명	79명	233명
국보법	20명	27명	20명	24명	35명	126명

- 96. 1. 1.부터 96. 5. 30.까지 구속된 양심수의 통계이다.

- 96년 들어 구속된 전체 양심수 233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54%인 126명이다.

〈표 2〉

96년 구속 양심수 신분별 분류

총	학생	노동자	군인	재야 및 기타
233명	115명	44명	16명	58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학련 사건 - 5월 8일

박노현(현역군인, 동국대출) 박종연(현역군인, 상지대) 김일영(현역군인, 서울대) 서정보(현역군인, 성균관대) 빈순아(경희대출) 성혜연(역성여대출) 서영주(역성여대출) 김지영(역성여대출) 손영우(동국대출) 김홍석(명지대) 이소영(성신여대출) 윤여림(성신여대출) 김정순(외국어대 대학원)

해방노동자통일전선 - 5. 29

김영덕(노동자) 박진석(대구택시노조) 김영복(회사원) 오상용(대구전보청년회)

사노맹 사건 - 5. 29

박병희(회사원, 경북대출) 최태경(주부, 경북대출) 김세태(회사원, 경북대출) 윤종국(개인사업, 경북대출) 김바로(경북대생)

전학투련 - 5. 25

명원창(성균관대 총학생회장) 현인숙(승의여전 총학생회장)

나라사랑청년회 - 5. 29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청년회 소식지 '장산곶매'에 범민족대회 관련 기사 게재한 혐의) 서형준(회장) 서미연(전 사무국장) 황윤미(조통위원)

한국노동청년연대 - 5. 28

하종규(부산대출)

구국전위 - 5. 14

이광철(전 전북연합 정책위장)

박해성(경남대 총학생회장, 마창총련 의장) - 5. 16 : 북한 오중흡 대학과 서신교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혐의)

김영덕(충남대) - 5. 15 : 민족충남대 활동기조직사건

김웅호(시립 인천대) - 5. 9 : 95년 인부총련 의장, 정민주 이해정 방북관련

● 노동자 구속자

이승필(금속연맹 부위원장) - 5. 24 : 제3자 개입

한국합섬 - 업무방해,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 22 임제영(노조 복지후생부장) 이병원(노조 부위원장) 전인규(노조 사무국장) 이정훈(노조 선전부장) 황영호(노조 위원장) 황성철(노조 쟁의부장)

5. 6

전병한(노조원) 권혁진(노조원) 유승재(노조원) 정상섭(노조원) 박지곤(노조원) 김진길(노조원) 박정호(노조원) 박세철(노조원) 박배석(대의원) 박만식(대의원) 신영호(대의원) 권혁근(대의원) 박세춘(대의원) 신동삼(문체2부장) 전석한(조직2부장)

● 학생 구속자

부경총련 출범식 - 5. 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시) 등

김성환(경남대) 박영수(경남대) 김명현(경성대) 김용보(부산대) 김동주(부산대)

한총련 출범식 이후 상경시위 - 5. 2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안수인(강릉대) 이왕희(경북대) 정상수(단국대) 김세종(승실대) 김조현(중앙대) 정승태(중앙대)

이제윤(고려대(서창), 충청총련 투쟁국장) - 5. 17 : 집시, 폭력, 특공 등

김민욱(단국대) 95한총련 학자추장 국보, 집시 960509

신영교(서원대) 충북총련 의장 집시, 폭력 960504

산업대 교육차별 철폐 시위 - 5. 3 : 집시법 등 위반 혐의

이대석(서울산업대) 서기정(서울산업대) 윤형섭(서울산업대)

전국사범대학연합회 출범식 관련 - 5. 12 : 화염병

김유성(전남대) 김철환(전남대)

김판수(경성대) - 5. 15 : 집시

조태현(외국어대) - 5. 29 : 집시, 폭력(동총련 집회)

김봉수(전남대) - 5. 2 : 집시, 국보(경영대 회장)

소진오(전남대) - 5. 2 : 집시, 국보

기타 구속자

영홍도 화력연구소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 5. 10 : 업무방해, 집시법 등 위반

문병찬(대책위원장) 이창우(주민) 고종환(주민)

- 위장 장애 등으로 대구 기독병원에 입원중이시던 김종호 선생님께서 지난 5월 2일, 퇴원 하셔서 현재 데에 머물고 계십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053-741-5567)
- 임현영 회원(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초빙교수)님이 5월 4일, 편운 문학상 본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서울 대 대동제를 맞아 '양심수석방 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정태, 박성희, 김혜미, 이미민, 허유정, 이경희, 이현, 이도현, 소수영, 이정규, 이득행 회원이 4일동안 밤늦도록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이신 김금수 선생님이

- 5월 25일, 회촉을 밝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동대문 감리교회 윤정미 전도사 등 19명의 성도들이 5월 26일,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좋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단국대 법사회학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8일부터 학교 대동제에서 '양심수 후원을 위한 주점'을 열고 대동제 기간동안 양심수 홍보 활동을 벌였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정식 회원(동보칼라)이 후원회의 사진을 무료로 현상, 인화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이것은 유료임) 바랍니다. (554-5159)
 - 경희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성금 2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월 산행



더위가 기승을 부려 몹시 힘드시지요?

더울 때 일수록 산에 올라가 여유와 넉넉함을 배워야 한대요.

그래야 시원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누가? 이히 우리 회장님)

산마루의 시원한 바람, 함께 쐬고 싶어요~

언제 : 1996. 6. 23 (일) 아침 10시

어디로 : 수락산

모이는 곳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매표소 앞

준비물 : 맷난 도시락, 회비 3,000원

통일인사 · 통일희망새 석방을 위한 하루주점

언제 : 1996. 6. 22(토)

낮 12시 ~ 저녁 11시 까지

어디서 :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주최 :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후원 : 민가협 등 여러 후원단체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뒤로하고 마침내 세계 1위, 2위, 3위 최장기수가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은 다시 굳게 잠기고 저 십오척 담장안에는 세계최장기수인 '또 다른 김선명'들과 400여 양심수가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울리며 그렇게 갇혀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를 양심의 녹슬음 아닐까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투환, 노태우를 기어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둔 양심수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잘못된 역사에 의해 지금 것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 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